"태양광·아파트…전남 농촌 난개발로 문제 발생"

농촌경제연구원, 주민 226명 설문

6명 중 1명 꼴 답해…'토지사용 규제 찬성' 절반 넘어

'거주지 살기 좋아졌다' 45.1%…9개 道 평균 웃돌아

전남 농촌 주민 6명 중 1명 꼴로 최근 3년 동안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명 중 1명은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해 주택, 공장, 축사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농촌 주민 2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5.9%는 "최근 3년 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로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 아파트, 공장·창고 등을 꼽았다.

최근 3년 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51.3%)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23.5%는 '보통'이라고 말했다.

농촌을 보전하기 위한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3명 중 1명(33.2%) 꼴로 "주택, 공장, 축사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9개 도(道) 가운데 경북(35.6%), 충북(35.4%), 전북(21.9%)에 이어 전남이 네 번째로 높았다.

일부 보전이 필요한 농산지만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38.9%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부분 농산지에 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8.1%로 나타났다.

전남 농촌 거주민들의 절반 가량은 토지사용 규제에 대해 찬성표(51.3%)를 던졌다. 토지사용 규제를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9.9%로, 경기(26.2%), 충남(22.3%)에 이어 9개 도지역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이외 보통은 22.1%를 차지했다.

전남 농촌 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도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고 있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는 응답률은 45.1%로, 9개 도 평균(37.0%)을 웃돌며 가장 높았다. 살기가 나빠졌다는 답변 비중은 충북(12.6%)과 강원(13.2%)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41.6%였다.

살기가 나빠졌다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 63.3%(중복응답)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일자리 감소'가 23.3%로 뒤를 이었고 '환경 오염'(16.7%), '외지인 유입으로 인심 악화'(6.7%), 기타(10.0%) 등 순이었다.

전남 농촌 주민들의 36.7%는 농촌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 발전과 소득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를 포함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28.3% 비중을 차지했다. '농촌 경관 아름답게 꾸미기'(14.2%), '생활 환경·농업 여건을 해치는 개발 행위 방지'(12.4%) 등 답변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농촌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 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등의 각종 법률들을 제정해 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9년 9~10월 전남 226명을 포함한 농촌(읍·면)에 거주하는 성인 14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벌였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 오차는 ±2.61%포인트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62.28 (-10.77)
↑	코스닥	971.13 (+2.03)
↑	금리 (국고채 3년)	1.103 (+0.004)
↑	환율 (USD)	1132.00 (+1.50)

광주지역 공공조달 규모 6년 연속 전국 최저

광주지역 공공조달 규모가 매년 전국 1% 비중에 머무르며 6년 연속 최저를 기록했다.

20일 광주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기관 발주금액은 2조299억원으로, 2019년(1조9908억원)보다 2.0%(391억원) 증가했다.

전남 공공조달 금액은 8조1240억원으로, 전년(7조4665억원)보다 8.8%(6575억원)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소재지역별 기관 발주금액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2%, 전남 4.6%로 나타났다.

광주 공공기관 발주금액은 지난 2015년 이후 6년 연속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공공조달 규모는 175억8000억원으로, 서울(38조8928억·22.1%), 경기(33조7735억·19.2%), 대전(15조4842억·8.8%), 경북(12조8361억·7.3%), 경남(8조9167억·5.1%), 인천(8조4343억·4.8%), 전남, 강원(7조6910억·4.6%), 부산(7조3370억·4.4%), 충남(7조2030억·4.1%), 전북(5조8732억·3.3%), 대구(4조9364억·2.8%), 세종(4조1394억·2.4%), 울산(2조2545억·1.3%), 제주(2조2022억·1.2%),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2015~2020년) 광주·전남 공공조달 규모는 60% 넘게 성장했다. 광주 기관 발주금액은 지난 2015년 1조2529억원에서 지난해 2조299억원으로 62.0%(7770억원) 증가했다. 전남은 4조9373억원에서 8조1240억원으로 64.5%(3조1867억원) 늘어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자리 침구로 시원하게

20일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직원들이 1층 행사장에서 쾌적한 수면을 도와줄 대자리 침구를 선보이고 있다. 자리는 대자리, 마작, 왕골, 왕대나무 등이 있다. 〈롯데쇼핑 제공〉

하나은행 '지역인재' 공채

광주·호남 등 5곳

하나은행이 광주·호남을 포함한 5곳 지역인재 신입행원을 뽑는다고 2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기존 공개 채용을 하반기에 전국 단위로 진행한 것과 달리 올해 상반기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광주·호남과 강원, 부산·대구·울산·영남, 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5곳이다.

5개 지역 총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하나은행 측은 말했다.

이들 지역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며,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서류는 오는 27일까지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등 서류 심사를 한 뒤 ▲필기전형 ▲1차 실무진면접 ▲2차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필기전형에서 디지털 소양 평가를 위해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CT) 비즈니스영역 문제가 포함돼 출제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신입행원들은 입행 이후 기업금융·IB 연수와 더불어 디지털 CDP 프로그램인 DT-University, 카이스트 연계 과정, 혁신기업 직무간 훈련(OJT)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받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역인재 신입행원 공채는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금융인으로 함께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전문성을 갖춘 특화 인재를 채용해 해당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에어컨'으로 여름 나세요

삼성전자는 20일 비스포크 디자인을 적용한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신제품에 대한 예약 판매에 돌입하고, 다음달 초 공식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비스포크 무풍갤러리'와 '비스포크 무풍벽걸이 와이드'다. 흰색 느낌의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밝은 색상을 추가하고, 교체 가능한 패널 구조를 적용해 거실부터 방까지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번에 화이트 색상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쉐브론 화이트, 쉐브론 라이트, 쉐브론 다크, 쉐브론 그리너리, 쉐브론 썬 옐로우, 브라운, 그레이 등 7종으로 구성된다.

출고가는 비스포크 무풍갤러리와 무풍 벽걸이 와이드가 각 1대씩 포함된 홈멀티 패키지(기본 설치비 포함) 기준으로 냉방 면적에 따라 427만~527만원 선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채권평가정보제공기관 선정

사학연금, 한국자산평가 등 3곳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채권평가정보제공기관'으로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정 절차는 지난 3월10일부터 진행됐다. 지원한 4개사 가운데 기술평가·계량평가 등 제안서 평가를 통해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3개사는 오는 6월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국내외 채권 정보(가격·수익률·발행정보 등)와 장외파생상품의 가격·수익률 등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